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⑨ 사후의 문제에 대하여

▶한줄요약
정토불교에서의 죽음의 해석은 죽음을 고통, 슬픔, 공포 등으로 점철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죽음과정의 '빛', 윤회의 또다른 증명



20세기 초 인도 북서부 다르질링에서 〈티벳 사자의 서(Bardo Thodol)〉 필사본을 발견해 영역본,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출간한 옥스퍼드대 종교학과 교수 에반스 웬츠(Evans Wentz)는 책의 서문에서 "삶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은 죽음의 진리를 일깨운다. 이 책은 의식을 가진 채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뒤 다시 육체로 돌아온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와 힌두교 등 일부 종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세계에 있다고 본다. 만약 윤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죽음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따라서 웬츠의 말처럼 삶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범죄자, 독립투사, 성직자 등 모든 인간은 일생에서 단 한 번만의 죽음을 맞이한다. 심지어 수십 혹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도 오직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인간의 죽음은 1회로 같다. 그러나 만약 윤회가 존재한다면 사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불교의 사상으로는 정토불교가 있으며 죽음학의 영역에서는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이 있다.

정토불교의 염불수행은 사후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왕생을 위해서는 임종 시의 염불, 생전의 선행, 계의 구족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목숨을 마친 뒤 불보살의 내영(來迎: 마중을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고 왕생이 성취된다.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중 하나인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단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 왕생하여 불퇴전에 머물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왕생의 종류를 상배(上輩), 중배(中輩), 하배(下輩)의 삼배(三輩)로 분류하며 임종을 맞이한 이를 무량수불과 여러 대중이 함께 내영할 것이라 약속한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는 삼배에 각각 세 가지 품을 더해 삼배구품(三輩九品)으로 나누고 각 품에 해당하는 왕생의 조건과 더불어 내영에 관해 상세히 묘사한다.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상위 단계인 상품(上品)의 상생(上生)을 위한 조건은 모든 계율을 구족하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염불수행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조건들을 모두 채웠다면 아미타불이 대광명을 발해 임종자의 몸을 비추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및 무수한 화신불과 함께 손을 내밀며 내영이 이루어진다.

상품의 중생(中生)에서는 비록 생전에 경전을 독송하지 않았지만, 불교를 신앙하고 비방하지 않고 인과법을 믿고 계율을 지키고 염불수행을 했다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량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자마금색(紫磨金色)의 연화대를 가지고 임종자 앞에 나타난다. 상품하생(下生)에서는 인과법을 믿고 수행하며 불교를 비방하지 않고,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많은 보살과 함께 금련화(金蓮華)를 들고 나투어 손을 내밀며 맞이한다고 설한다.

중품(中品) 상생(上生)에서는 오계(五戒)를 잘 지키고 오역죄(五逆罪: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단의 화합을 깨거나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미타불이 여러 비구에 둘러싸여 금색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난다. 중품 중생(中生)에서는 일생동안은 아니지만 많은 날 동안 계율을 잘 지키고 염불수행을 했다면 아미타불과 여러 보살이 나타나 금색광명을 발하며 칠보(七寶)로 된 연꽃을 가지고 임종을 내영한다.

중품의 하생(下生)이후 부터는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극락과 48대원에 대한 설법 및 불법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하는 것' 이라는 '특별한 요건' 이 추가된다. 왜냐하면 이전의 상위단계처럼 수행, 계율, 선행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품 하생에서는 계율을 지키거나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타인에게 자비행을 실천한 이가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염불한다면 칠일이 지난 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킨 뒤에 왕생하게 된다.

하품(下品) 상생(上生)은 불교를 비방하지 않고 계율을 어느 정도 지켰으나 악업을 지은 자가 나는 곳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선지식을 만나 불법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을 행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화신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임종자 앞에 나타나 화신불의 광명이 방안에 가득함을 보고 기뻐한 뒤 왕생한다. 하품 중생(中生)은 계율을 범한 자가 나는 곳으로 이 역시 임종 시에 선지식을 통해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하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맑은 바람으로 바뀌고 천화(天花)가 날리며 꽃 위에서 화신불과 보살이 맞이한다고 설한다.

근사체험 연구서 발견되는
죽음 과정의 '빛' 과의 만남
정토불교의 '광명'과 맞닿아
죽음의 종교적 승화 의미해

마지막으로, 최하 단계인 하품 하생(下生)은 오역죄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데 반드시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미묘한 법을 듣고 염불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미타불을 칭하는 요건을 채워야 한다. 만약 임종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십념(十念)을 행한다면 수명을 마칠 때 태양 같은 금련화(金蓮華)가 임종자 앞에 나타나 왕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위 내용을 보면 상품에서 하품으로 내려갈수록 내영하는 불보살의 규모와 내용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역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는 악행이지만, 이를 범한 자까지 극락왕생과 내영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단 하나의 중생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아미타불의 무한한 포용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각 품에서, '아미타불이 대광명을 발해', 중품에서 '아미타불이 금생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남', '아미타불과 보살이 금생광명을 발하면서 칠보로 된 연꽃을 가지고 내영함' 등 빛과 연관된 언급이다. '광명(光明)' 은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제3원, "그 나라 중생의 온몸에서 '찬란한 금색광명' 이 빛나지 않는다면(國中人天 不悉眞金色者)", 그리고 제12원, "저의 '광명' 이 한량 있어 백천억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 없다면(光明有能限量 下至不照百千億那由他諸佛國)"에도 나타난다. 이에서 볼 때 '빛' 은 임종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정토불교에서 중시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임종 시 불보살의 내영이나 광명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앙을 전제한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특히 임종 시 광명의 출현은 죽음학의 중요한 주제인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 과 연관된다.

근사체험은 입관(入棺)체험처럼 죽음을 임시로 체험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실제로 심정지(心停止, cardiac arrest)가 일어나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깨어난 경험을 말한다. 근사체험 연구의 선구자인 레이몬드 무디(Raymond Moody)는 우연히 근사체험자의 경험을 듣게되고 이를 계기로 약 150여 가지의 체험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놀랍게도 근사체험자는 유사한 체험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2. 자신의 죽음을 선고(宣告)하는 소리를 들음, 3. 마음의 안온(安穩)과 정적, 4. 울려퍼지는 듯한 소리를 들음, 5.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느낌, 6. 물리적(物理的) 육체를 떠남, 7. 타자(他者)와 만남, 8. '빛의 존재' 와의 만남, 9.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 10. 경계 또는 한계를 자각, 11. 소생(蘇生)을 경험.

체험의 항목들 중 주목할 부분은 8번으로, 심장이 정지되고 죽음에 이르면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빛의 존재' 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무디는 그의 저서, 〈삶 이후의 삶(Life after Life)〉에서 "근사체험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사랑과 온정으로 가득한 '빛의 존재' 가 나타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을 일순간에 재생해 보여주었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한다.

2000년대 이후 의학 학술지에서 근사체험을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사체험이 의학계에서 다루어진다는 말은 그것이 곧 '과학의 영역' 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명한 의학저널인 란셋(LANCET)에서 판 롬멜(Van Lommel)은 심정지 후 소생된 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근사체험의 사례를 조사해 공통된 경험을 분류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죽었음을 자각함 (Awareness of being dead) 2.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s) 3. 체외 이탈의 경험(Out of body experience) 4. 터널을 통과함(Moving through a tunnel) 5. 빛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with light) 6. 여러 가지 색상을 봄(Observation of colours) 7. 천상의 풍경을 봄 (Observation of a celestial landscape) 8. 죽은 자와의 만남 (Meeting with deceased persons) 9. 삶의 회고 (Life review) 10. 경계의 나타남 (Presence of border)

앞의 항목들 중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죽은 자와의 만남', '체외이탈의 경험', '삶의 회고' 등은 무디의 연구와 일치하며 특히 5번, '빛과의 의사소통' 은 무디의 분류 중에서 8번, '빛의 존재와의 만남' 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후 빛의 경험은 염불행자가 임종을 맞이한 후 일어나는 〈관무량수경〉의 내영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 '만약 염불행자가 임종을 맞이하면, '아미타불이 금생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남', '아미타불과 보살이 금생광명을 발하면서 칠보로 된 연꽃을 가지고 내영함' 등과도 유사하다. 이에 근사체험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망 이후의 빛의 경험은 논의의 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사후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한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의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토계 경전에서 죽음 이후 광명의 출현을 언급한다는 점을 연결시켜 보면 임종 시 빛의 출현을 단순히 종교적 영역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빛의 경험을 포함한, 사후 경험에 관한 문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주제이며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정토불교의 내영에 관한 묘사와 근사체험은 죽음을 고통, 슬픔, 공포 등으로 점철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죽음의 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보자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